

# 수륙재의 한국화에 대한 일고찰



이성운

동국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 II 목 차 II

- I. 서언
- II. 사유(思惟)의 융통성
  - 1) 수용(受容)의 측면
  - 2) 의식(儀式)의 측면
- III. 행위(行爲)의 구체화
  - 1) 목욕의식의 구체화
  - 2) 이운의식의 현재화
- IV. 결어

### ❖ 국문 초록

이 글은 발상지 중국에서 현재 행해지는 수륙재와 한국수륙재를 비교하여, 한국수륙재의 특성을 思惟와 行爲라는 두 관점으로 분석한 글이다.

첫째, 수륙재의 ‘수륙’에 대해, 중국에서는 ‘수륙’을 중생의 의보처(依報處)라고 이해하고 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물’과 ‘뭍’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에서부

터 성인과 범부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거나 용왕굿이라는 이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수록재회가 열리게 되었음을 네 곳의 공간에 알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네 사자의 이름에 ‘연월일시(年月日時)’라는 ‘시간 개념’을 투영함으로써 시공의 일치를 추구하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중도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수록의문을 요점 위주로 신찬(新撰)하거나 현실적 관점에서 의례를 재편(再編)하고 있다. 설판(設辦) 상황에 따라 의례를 봉행하기 위해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이라는 대·중·소의 의문을 편찬하거나 현실을 반영한 영산작법을 합편하거나, 상위·중위·하위의 순서로 소청하면서도 하위의 영적 존재를 먼저 대령하여 업장을 없애고 선근을 닦게 하는 의례 차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역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록재에서 설행되는 沐浴의식과 侍輦의식에서 ‘행위’의 구체성을 볼 수 있다. 목욕을 할 때도 상위와 중위의 성현들을 위해서는 욕실로 안내하는 데 그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수록재의식이 같다. 다만 한국의 수록재에는 하위(下位)의 존재들에게는 일일이 치질을 도와주거나(작양지진언), 입을 가시게 하고(수구진언), 얼굴과 손을 씻게 해준다(세수면진언), 그리고 종이옷으로 해탈 옷으로 변화하게 하는 화의(化衣)의식도 옷을 주는 진언(授衣진언), 옷을 입는 진언(着衣진언),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진언(整衣진언) 등이 시설되고 있으며, 수인(手印)이 결인(結印)되고 있다.

또 법회도량에 부처님을 모시는 시련(侍輦)의식을 구체적으로 설행한다. 불화를 내거는 괘불이운의식은 티베트 등지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모습이지만 삼신(三身)위패를 연(輦)에 실어 법회도량으로 모시는 것은 국왕의 행차를 본 뜬 의식으로, 한국수록재의 구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문 핵심어

수륙재, 목욕의식, 시련의식, 사유의 융통성, 행위의 구체성.

## I. 서언

고려 광종 968년에 설행된 무차재회를 한국 최초의 수륙재<sup>1)</sup>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수륙재와 유사한 법회는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진흥왕 33(572)년 전사자를 위한 위령제를 신라 최초의 수륙재<sup>2)</sup>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해하는 수륙재회는, 1090년 최사점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수륙재 의문이 수입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후 14세기 초엽에 수륙재 의문의 신편 또는 찬집되는<sup>3)</sup> 시기를 거쳐, 고려 말기에 이르러 조상과 고훈의 추천의식으로 수륙재라는 명칭으로 설행되기 시작했다고 보인다.<sup>4)</sup> 또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1395년 2월 강원도의 삼화사와 남해의 견암사, 서해의 관음굴에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왕 씨들을 위한 수륙재가 국가에 의해 개설되었으며,<sup>5)</sup> 이어 2년 뒤 서울의 진관사에 수륙사가 세워지고,<sup>6)</sup> 이후 진관사는 국행수륙도량으로 인정되었다.<sup>7)</sup> 이렇게 조선 초기 국가 주도로 개설되기 시작한 수륙재는 연산군 시대에 소거되기까지 이후 1백 여 년 이상 지

- 
- 1) 미등, 『국행수륙대제』,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p.19.
  - 2) 전경욱, 「수륙재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법성포수륙재』(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논문집), 전남: 법성포단오제보존회, 2008, p.8.
  - 3)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pp.7~18.
  - 4) 1365년 노국공주와 고훈을 위한 나옹(1320~1576)의 「國行水陸齋起始六道普說」(『韓國佛教全書』 제6집, pp.717下~717中)로 볼 때 국행수륙재라는 칭명은 14세기 중엽에도 나타난다.
  - 5) 『태조실록』 권7, 1395년 2월 24일조.
  - 6) 권근, 『국역양촌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1986, pp.251~253.
  - 7) 회암사는 작법도량, 진관사는 수륙도량으로 불리고 있다. 『세종실록』 6권 1419년 11월 28일.

속되었다.<sup>8)</sup> 이 같은 역사성과 전승 현실에 근거해, 2013년 12월 19일 삼화사, 진관사, 백운사에서 진행되는 수륙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1세기 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수륙의문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국 수륙재는 중국에서 수입된 의문대로 설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려 일연의 제자 혼구(混丘, 1251~1322)가 『신편수륙의문』을 찬하였고,<sup>9)</sup> 1342년 현행 한국수륙재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中禮文(중례문)』)<sup>10)</sup>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結手文(결수문)』),<sup>11)</sup>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志磐文(지반문)』), 『자기문(仔夔文)』,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排備文(배비문)』) 등이 편찬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sup>12)</sup> 이 의문은 편찬 당시의 실정에 맞게 의문의 요점만을 정리·편집하였다고 보인다.<sup>13)</sup> 이 의문의 편찬과 변용은 수륙재 의례와 의식에 대한 당시 의례 담지자들의 사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례의식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수륙의문이 편찬되던 시기는 원나라 간섭기로, 밀교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인(手印)의 편입이나, 불부·연화부·금강부의 상위 삼보위격 등의 도입은 그것을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 글은 중국에서 수입된 수륙재가 한국적으로 정착하게 된 모습을 ‘한국화’

8) 金容祚, 『朝鮮前期의 國行祈攘佛事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258.

9) 이제현, 『동문선』 권118.

10)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pp.13~14.

11)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서울: 한국선학회, 2013, p.263.

12)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264.

13)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집, 한국불교학회, 2014, p.431.

14) 『中禮文』의 상위 소청은 여래 보살 현성인 데 비해 『結手文』에서는 불부 연화부 금강부를 소청하고 있는데 이는 태장계 만다라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방의식은 금강계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며, 한국수륙재에서 한국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 그 특성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불교가 “인도·중국·일본 불교와 변별되는 ‘한국화된 불교’(Koreanized Buddhism)로서 인도 불교 이래의 불교의 보편성을 그대로 지니면서도 한국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체성(체질)과 심성(기질)에 맞게 조화되어 한국의 고유성(특수성)을 확보”<sup>15)</sup>하였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수륙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륙재 의문과 설행 양태와 한국의 그것을 면밀히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 수륙재의 의문에는 요점 위주 의문과 영산 합편 의문과 현행 한국수륙재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sup>17)</sup> 이 의문들과 그 행법, 그리고 현재 대만 등지에서 설행되고 있는 『水陸儀軌會本』<sup>18)</sup>과 『中國の佛教儀禮』<sup>19)</sup>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문과 행법, 그리고 고행의 의문<sup>20)</sup> 등을 일차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수륙재의 의문과 행위는 광대하고 장황하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화’라고 보이는 주요 부분만을 대상으로, Ⅱ장에서는 수륙재에 대한 이해와 의문의 편집, 인식의 확장 등 사유의 융통성적인 측면에서 수륙재의 한국화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수륙재의 시식의식 이전에 행하는, 영적 존재들의 정화(淨化)하는 목적의

15) 고영섭, 『우리 불학의 길』, 서울: 정우서적, 2004, p.9.

16) 다만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수륙재의 한국화라는 전형이 나타나는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7)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pp.431~438, 『중례문』·『結手文』·『지반문』을 요점 위주 의문; 조선시대 편찬된 『영산대회작법절차』나 『범음집』 등을 영산 합편 의문; 그리고 진관사 삼화사 등지에서 설행되는 의문을 현행의문으로 이해하고 의문과 그 행법을 일차 비교대상의 저본으로 삼는다. 각 본의 원본은 참고문헌에 별도로 표기한다.

18)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19) 鎌田茂雄, 『中國の佛教儀禮』,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6.

20) 志磐 謹撰, 祿宏 重訂,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 74).

식<sup>21)</sup>과 의식 실행 장소로 초청 대상을 옮겨오는 이운(移運)의식의 의문과 대상<sup>22)</sup> 등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특징을 행위의 구체화라는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사유의 융통성

수륙재의 어떤 모습들이 수륙재의 한국화라고 할 수 있을까. 논자는 수륙재에 대한 사유와 수륙재의 몇 행위에서 수륙재의 한국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행위는 사유와 나뉘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의식의 구상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를 사유의 범주에서 분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용(受容)의 측면

#### 1) 다양한 이해

4세기 말 한국에 불교가 공인되었을 때, 불교에 대해 한국인들은 ‘높이 받들

- 
- 21) 구미래,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 『淨土學研究』 제22집, 2014; 이성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114~117.
- 22) 이성운 외, 「수륙재의 이운과 차서의 정합성 고찰」(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상반기학술발표회, 2014.6), pp.41~47; 헤일명조, 「수륙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제언」(『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승양상과 발전 방향』, 동해: (사)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한국불교민속학회, 2014, pp.76~85; 洪潤植, 『佛敎儀式』(文化財研究所, 1989, p.645)에는 시련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고, 『범음산보집』 등에는 그 배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어 믿으면 복을 구할 수 있는 종교로<sup>23)</sup>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복을 구하기 위해 ‘보시’를 행하며, 보시를 실천하는 의례인 수륙재에 대해 중국에서는 “시방의 삼보와 육도의 만령에게 공양을 올리면 무한한 공덕이 있으며, 이것은 자신 한 몸만 이익 되게 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sup>24)</sup>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한국불교 일반에서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해하며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륙재는 수증고혼을 위한 재<sup>25)</sup>라고 하”거나 “재회의 성질상 당우(堂宇) 없이 아무데서나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도량을 베풀어 행할 수 있는 것”<sup>26)</sup>이라거나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sup>27)</sup>이라거나 “수륙이라는 것은 제불보살 연각 성문의 이 네 성인은 성스러운 까닭에 깨끗한 것은 물에 비유하고 천도와 인도·아수라도·방생도·아귀도·지옥도의 이 여섯 범부는 물들었기 때문에 땅에 비유한다.”<sup>28)</sup>거나 “바라문 선인을 위해서는 가지한 음식을 물에 뿌리고, 지옥중생을 위해서는 땅에다 뿌리는 시식(施食)의 행법에서 유래한다”<sup>29)</sup>라고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2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7년조; 『삼국유사』 난타벽제조.

24)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p.384.

25)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1984, p.2.

26) 尹武炳, 『國行 水陸齋에 對하여』, 『백성육박사송수기념논문집』, 서울: 동국대학교, 1959, p.633.

27) 한상길, 『조선시대 수륙재 실행의 사회적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동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이하 이 책의 발행처는 생략함, 2009, p.40.

28) 연담유일, 『연담대사입하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한국불교전서』 제10책, 1989, pp.273~274.

29) 이성운,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제18집, 한국정토학회, 2012, pp.180~181.

하지만 중국불교의 수륙재에서는 “수륙은 육도의 일체 중생이 의보(依報)이다. 육도중생의 의보에는 세 곳이 있는데 수(水)·육(陸)·공(空)이 그것이다. 다 여기서 보처를 받는다. 오늘날 ‘수륙’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공(空)을 포섭해야 한다. 또 수륙 이 두 곳은 그 고통이 거듭되기 때문이다.”<sup>30)</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만불교의 수륙재 저본이기도 한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 이 설명에 의거해서인지 대만의 영취산불교교단에서는 수륙법회를 ‘영취산 수륙공대법회’<sup>31)</sup>라고 칭명하고 있다.<sup>32)</sup> 이렇듯이 중국 수륙재는 수륙법회라고 주로 칭명되는데 비해 한국의 수륙재는 ‘수륙’에 대해 다양한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 수륙회나 법회라기보다 ‘수륙재’로 이해하며, “산수(山水)가 정결한 곳에서 수륙재하는 법으로 거행”<sup>33)</sup>하며 용왕재로<sup>34)</sup> 이해하기도 한다.

여하튼 그간 수륙재에 대해 발표돼온 연구나 자료에 나타나는 수륙재의 설명 목적은 특정 망자를 제사하는 제례, 또는 무주고혼(無主孤魂)에 제사하고, 무주고혼(無住孤魂)을 추천하는 데 있다.<sup>35)</sup>고 하겠지만 수륙재의 역할은 망자의 제례와 추천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공덕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고, 육도 사생으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sup>36)</sup>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수륙재 자체에 대한 한국불교의 다양한 이해는 하위 의식들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로 수륙재 서두에 이루어지는 시련의식에

30) 志磐 謹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권1(X74), p.787下;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이하 『지반문』이라 약칭함,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1輯, 삼성암, 1993, 이하 의총.이라 약칭), p.572上.

31) <http://www.093shuilu.org/shuilu.aspx>

32) 이성운, 『삼화사국행수륙재의 실단과 장엄』,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승양상과 발전 방향』, 동해: (사)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 한국불교민속학회, 2014, pp.10~12.

33) 『세종실록』 6권, 1419년 11월 3일.

34)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1984, p.2.

35)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p.255~256.

36) 윤소희, 『수륙재의 원형에 대한 고찰-대만 포광산 수륙법회를 통하여-』,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 서울: 영산재보존회, 2008, pp.38~49.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 행위의 구체성에서 다루게 된다.

## 2) 인식의 확장

외부의 새로운 문화가 이입되면 내부의 사유와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입된 문화는 변화를 겪게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인위적 변화도 있겠지만 발신지의 그것이 온전히 수신지에 전달되지 않는다.

‘촬요’ ‘찬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록재의 의문(義文)은 대체로 축소지향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확장의 길을 걸었다고 보이는 점들이 발견된다. 논자는 대표적인 것으로 법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네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부여 받은 사직사자의 이름이라고 이해한다.

중국: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한국: 『중례문』·『결수문』**
四天捷疾持符使者 空行捷疾持符使者 地行捷疾持符使者 地府捷疾持符使者	年直四天使者 月直空行使者 日直地行使者 時直琰摩使者

중국의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같은 계통인 한국의 『지반문』도 중국의 그것과 동일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수록재의 『중례문』과 『결수문』의 사직 사자의 명칭에는 ‘연월일시’가 포함되어 있다. 천계·공계·지상·지하의 공간 개념에, 시간의 연월일시를 삽입하여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 宋四明東湖沙門志磐 謹撰, 明古杭雲棲後學株宏 重訂,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 74), p. 788b.

\*\*) 『중례문』과 『결수문』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의미이다. 石峰, 『水陸無遮儀禮集』下, 경남: 불모산영산재보존회, 2557, p. 84前.

그렇다면 법회가 열린다는 부절을 가지고 네 곳의 존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네 사자(使者)의 이름에 중국수륙재의 그것과 달리 한국수륙재에서 사자들에게 시간을 지칭하는 연월일시를 배대한 연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한국수륙재 수용자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륙재의 진행순서를 간단하게나마 일별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륙의궤회본』의 강목에 보이는 수륙재의 순서이다.

啓壇結界-發符懸旛-奉請上堂-奉供上堂-告赦儀則-誦地藏經上供  
 奉請下堂-說幽冥戒-禮水懺上供-奉供下堂-上圓滿供-燒圓滿香-送判宣疏-  
 收疏軌則-送聖法儀<sup>\*\*\*</sup>

네 곳에 사자를 보내는 의식은 <발부현번>편의 ‘발부’에 해당되며, 한국수륙재에서는 <사자의식>에 해당된다. 초청장[첩뎨을 네 지역으로 보내고 나면, 중국의 수륙재에서는 네 성인의 번을 다는 의식이 진행된다. 하지만 한국수륙재에서는 오방의 오제에게 오방을 열어달라고 청하는 오방의식, 즉 오로단(五路壇)의식이 행해진다. 위 중국의 『수륙의궤회본』이나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일한 의문을 축약한 한국의 『지반문』에는 사자의 명칭은 중국의 그것과 같으나 중국 수륙의궤에 보이지 않는 오로의식은 존재하고 있다.

중국수륙재의 사자의식이나, 다섯 곳의 길을 열어달라고 청하는 한국수륙재의 오로의식에는 둘 다 공히 지역 방위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사자에 의한 이승과 저승의 소통, 오방을 활짝 열어 소통하는 것은 유불도가 소통하는 것으로<sup>37)</sup>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한국수륙재에는 독특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맑은 지역이라는 공간 개념에 배당된 사자의 명칭에 시간 개념을 투영해 시

\*\*\*)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94年, pp.23~24..

37) 홍윤식, 「수륙재의 내용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제』(2009), pp.15~16.

간과 공간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가 법회를 알리기 위해 떠나는 네 곳은 천계 공계 지상 지하라는 공간적 개념이다. 하지만 그곳을 공간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곳은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다시 말해 수록재 법회를 알리로 떠나는 공간조차 ‘연월일시’라는 시간에 합일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에 시간을 투영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공간과 시간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중도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한국수록재에서의 공간은 시간 속에서 무화된다. 이제 이승(此生)은 이승<sup>38)</sup>(二生)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오방’이라는 우주적 공간으로 회귀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겠다.

## 2. 의식(儀式)의 응통

### 1) 의문의 신편(新編)

중국수록재의 의문은 남 수록 계통인 송 지반(志磐)의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6권)과 북 수록 계통인 양악(楊諤)의 『천지명양수록의문』(3권)<sup>39)</sup>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대만 등지의 중국불교에서는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로 수록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인다.<sup>40)</sup> 광의로 볼 때, 현재 국내에 남아 있거나 편찬된 수록재 의문은 남북 두 계통의 유형과 각각의 수록단에 붙이는 방문(榜文)의 ‘잡문’(『태비문』류와<sup>41)</sup> 각단 중심의 『자기문』이라고 할

38) 이승은 이생[此生]으로 표기돼야 하지만 이승과 저승(生)과 같은 고어표기로 한다.

3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록재』,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0, p.14;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知識出版社, 1982/1989.

40) 鎌田茂雄, 『中國の佛教儀禮』,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86, pp.123~164.

41) 이성운, 「현행 한국수록재에 대한 검토」, p.264.

수 있다.

국내 첫 수륙재 설행 사례를 고려 광종 963년 혹은 968년에 귀법사에서 행해진 무차수륙회로 보고 있지만<sup>42)</sup>, 수륙재 의문이 처음 수입된 것은 고려 선종 7(1090)년이고, 훈구에 의해 『신편수륙의문』 2권이 찬집되었는데, 이는 갓춘 의문으로 보인다. 그 무렵 죽암 猷 승려에 의해 『중례문』으로 불리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1권)이 찬집된다. 후대의 간행본이지만 『중례문』의 ‘이곳에 있는 인계(수인) 등과 법구는 소본에 실려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거듭 신지 않는다’<sup>43)</sup>라는 협주를 볼 때, 소본 곧 수인이 있어 『결수문』으로 불리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또한 14세기 초기에 편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결국 한국불교에는 중국의 남북 두 계통의 수륙의문으로 『지반문』이라 불리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1권)와 『중례문』과 『결수문』<sup>45)</sup>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 한국불교에서 간행된 수륙재 의문으로는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중범음집』,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신간산보범음집』 등이 있으며, 『영산작법』과 『예수작법』과 등과 합편된 본이 ‘범음집’ ‘수륙재의범음집’이라고 불린다. 다양한 의식이 합편된듯하지만 실은 같은 수륙재의 대소(大小) 의문을 모아놓고 있을 뿐 한국불교계 일반에서 이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재 의문이 아니다.<sup>46)</sup>

42)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pp.20~21.

4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총.2, p.217下), “所有印契等法具載小本此重錄.”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 서지학회, 2011, p.361.

44)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263. 이 글의 논지와 『중례문』과 『결수문』이 동시 동일 장소에 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편찬의 선후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5) 필자는 수륙재의 정통 의문으로 『결수문』을 추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비록 정통의문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의례 상황에 따라 의문이 선택되었다는 견해를 새롭게 추가하고자 한다.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268.

46)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p.263~266, 한국수륙재 의문 형성 과정 참조.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을 보면, 구조는 같으나 소청 규모의 장단, 아  
 되는 말의 표현 등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 세 의문은 재회의 설판 상황  
 에 따라 “견기이작(見機而作)”으로 선택된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예는 두 가지로  
 증명될 수 있다. 『지반문』·『중례문』·『결수문』 등의 수록재 작법절차 서책이  
 동일한 곳에서 동시대에 간행된 사례가 적지 않는데,<sup>47)</sup> 이는 이 의문들의 역할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세 의문은 계통이 다른 수록의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중·소의 차이가  
 있다.<sup>48)</sup> 이는 어느 도량에서는 『중례문』으로 하고, 어느 법회에서는 『결수문』으  
 로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sup>49)</sup> 이는 어느 지역의 어느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법회 도량의 설판(設辦)의 재 규모에 기인된다.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단서  
 가 적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지만 1713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신간산보  
 범음집(新刊刪補梵音集)』의 〈회주증사인영의(會主證師引迎儀)〉 ‘협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범음을 아는 이가 회주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엎드려 묻는다. ‘작법은 무엇으  
 로 해야 할까요?’ 회주는 명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명하고 없으면 ‘사례  
 에 의지해 하라.’고 말한다. 범음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물러간다.”<sup>50)</sup>

위의 예시는 수록재의문을 고정화하지 않고 당일 재회의 규모에 따라 『지반

47) 이성운,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p.432. 주56) 재인용.

48) 이성운,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pp.433~434.

49) 현 삼화사 수록재는 『중례문』이, 진관사와 백운사 수록재는 『결수문』이 모본이라고 할  
 수 있다.

50) 知梵音 趨進會主前 拜伏云 “作法何以爲之” 會主如有可命之事命之無則云 “依例爲之”  
 梵音 唯唯而退. 『新刊刪補梵音集』(의총.2), p.581.

문』·『중례문』·『결수문』 등을 선택하여 재를 봉행한다는 것을 보려준다.<sup>51)</sup> 여러 의문을 신편(新編)해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광략(廣略)<sup>52)</sup>의 대기이설(對機已設)로 의식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한국수륙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의식(儀式)의 재편(再編)

현재 한국불교의 수륙재 의식의 대체적인 차서는 다음과 같다.

시련→대령→관육→괘불이운  
 수륙무차평등재의식  
 운수상단 ~ 고향계  
 설회인유편 ~<sup>53)</sup>

한국수륙재의 『중례문』·『결수문』의 첫 장은 설회인유편으로 시작되고, 『지반문』은 개계불사로 정삼업진언으로 나와 도량을 엄정히 하고 가람신(伽藍神) 또는 가택신(家宅神)을 청해 도량을 호지해주기를 청하는데, 중국수륙재 역시 이와 같다. 『지반문』을 제외한 고행의 한국수륙재의문에서는 설회인유편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위 차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수륙재는 시련→대령→관육→괘불이운의 의식이, 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륙무차대회(水陸無差大會)의식 이전에 행해지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범음산보집』(1723)<sup>54)</sup>의 목차나, 현재 한국불교의 천도재의

51) 이성운,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에 대한 논평문, 한국정토학회, 제 17차학술대회 『조상신앙』, 2014, p.98. 이는 현재에도 유의미하며, 설판에 따라 재는 대소로 정해지며 필자는 재의 경제학이라고 하였다.

52) 廣略의 의미는 “夜短則運心偈呪云, 從容則香羞羅列云云” 등이 잘 표현해 준다.

53) 金春明, 『水陸儀文』, 전북: 全北佛敎聯合會, 1988.

54) 『범음산보집』(『한불전』 11), p.462. 目次.

목차나,<sup>55)</sup> 영산재의 차례<sup>56)</sup>에서도 확인된다.

대령은 영가를 대면하는 의식이고, 관욕은 영가를 목욕해 주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록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식을 할 하위의 고힌들을 대면하는 의식은 상위·중위·하위의 삼위로 청할 때 하위에서 청해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을 수록재의 본 의식 이전에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수록재에서는 이들을 시련 다음에 청해 대면하고 있을까. 대령 앞에서는 불당의 부처님을 재회도량으로 모시거나 당일 시식 받을 특별한 영적 존재를 모시는 시련(侍巖)을 행하고, 그 다음에 관욕을 이운하고 있다. 한국수록재에서 하위의 영적 존재들을 먼저 청해 자리에 앉혀 놓고 수록재 본 의식을 행하고 있는 연유는 무엇인가.

첫째, 『중례문』·『결수문』으로 하위의 존재를 소청(召請)할 때는 한꺼번에 일체 존재를 청하는 도청으로 진행된다. 수록재를 봉행하는 목적상, 하위의 존재들에게 공양을 하고 붓다의 법문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상위의 삼보와 중위의 삼신을 소청해 공양을 올리고 나서 하위의 존재들을 청해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게 하는, 긴 시간 동안 상위와 중위의 성현들이 기다려야 한다. 성현들은 자비가 충만한 존재이므로 거기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현을 모시는 이들의 마음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바른 예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57)</sup> 그러므로 상위와 중위의 소청이 있기 전에 먼저 초청해 관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가 상위의 삼보와 중위의 신중님을 맞이해야 예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서울: 조계종출판사, 1998/2003, p.271.

56) 심만춘, 『영산재』,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p.135.

57)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어산작법학교 학장이자 의례위원인 법안 스님은 어른 앞에 서 있을 위치를 알려주고 간단히 요기를 하게 하려고 한다고 논자에게 증언하였다.

둘째, 『범음산보집』(1723) 차서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불교의 수륙재에서는 모두에 간략한 영산작법이 행해진다. 그런데 그 영산작법 이전의 의식은 대체로 대령의(對靈儀), 분수작법(焚修作法), 이운(移運)의식, 설주(說主) 입좌식(入座式) 등이다. 영산작법 의식 가운데 분수작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수작법은 혼(昏)분수와 신(晨)분수가 있으며, 이 의식을 예불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sup>58)</sup> ‘분수(焚修)’는 ‘분제악업(焚諸惡業) 수제선근(修諸善根)’<sup>59)</sup>하는 업장을 참회하고 선근을 늘이는 조석의 정진법석이라고 할 수 있다.<sup>60)</sup> 그러므로 수륙재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이들을 먼저 소청하는 것은, 추천하고자 하는 영적 존재들의 업장을 없애주고 선근을 늘려주어 수륙재의 본래 목적인 왕생극락의 추천(追薦)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말미암아 본 수륙재를 행하기 전에 대령을 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하위의 존재들을 먼저 청하게 된 것은 성현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먼저 초청해 업장을 없애주고 선근을 늘려주어 수륙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위에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수륙재는 의문의 신편에 이어 의례의 차서를 재편(再編)하여 봉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례 상황에 따른 현실적이고 특수한 실성을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역동성과 사유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한국수륙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8) 正覺, 『예불이란 무엇인가』, 서울: 운주사, 1993/2004], p.4; 김종명, 『한국 일상예불의 역사적 변천』, 『불교학연구』 18,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p.160, 주 56.

59) 『靈山大會作法節次』(『의총』 2), p.138下.

60) 이성운,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 『보조사상』 제38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2, p.110.

### Ⅲ. 행위의 구체성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6권)에서 중국수륙재를, 『지반문』·『중례문』·『결수문』에 나타나는 한국수륙재의 목욕의식을 구조와 행법을 비교하여 수륙재의 한국화를 살펴보고, 중국수륙재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한국수륙재에서 행해지는 이운(移運)의식의 시련(侍輦)에서 수륙재의 한국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 1. 목욕의식(沐浴儀式)의 구체화

목욕(沐浴)은 관욕(灌浴)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수륙재와 한국수륙재 의문은 그 모습이 달리 나타난다. 목욕의식의 차서와 행법의 증감을 통해 목욕의식에 나타나는 수륙재의 한국화를 살펴보자.

##### 1) 차서와 행법

###### (1) 중국수륙재

범부와 성인(凡聖)을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눠 초청하는 한국수륙재와 달리 중국수륙재에서는 상당과 하당으로 나눠 범성(凡聖)을 초청한다.

① 먼저 상당에 초청되는 성인들로는 1석의 청정법신비로자나불 등 불격에서 시작하여 수륙재회가 일어나게 된 인연을 짓게 된 아난존자에서부터 양무제의 꿈에 나타난 신승(神僧), 수륙재의문을 찬집한 지공과 양무제, 병법의 승우, 당대의 영공, ~ 사명, 동호, 주굉, 의적 등의 제 조사를 10석에까지 연이어 청한 [通講] 다음, 봉청진언을 염송하고 재주(齋主)는 정성 다해 인사를 올린다.

이어 금강의 몸은 때가 없으나 목욕을 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성인들께 따듯

한 온실에 이르실 것을 청한다. ‘옴 디샤 디샤 승가 스바하’라는 목욕진언을 삼편 하고 바라를 올리고 향등(香燈)은 불의(佛衣)로 변화하는 것을, 주(主)법사는 목욕소는 칠보로 넓고 깨끗하게 이뤄졌으며 일체 성현이 보시하는 이의 목욕물 올리는 뜻을 따라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관상을 한다. 계송으로 찬탄하며 목욕을 마친다. 다음에는 현보좌진언으로 성현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관상하며 공양의식으로 넘어간다.<sup>61)</sup>

② 하당의 존재들은 삼계 28천의 신중을 청하는 제1석에서 시작하여 12석에서 가람신 주거신 등, 한국불교의 중위(壇)에 해당하는 신위를, 13석에서 재주가(家)의 상세선망 조종망령 등을, 14석에서 당해 도량의 선조사와 수륙당에 모신 단월 등의 위패와 법계 내의 9종 10류의 무사(無祀)고혼 등을 청하고, 이어 12유형의 비명횡사한 여러 혼들을 청해 하당소청을 마친다. 이 12유형이 한국 수륙재의 하위(壇)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소청의 여러 진언이 끝나면, 목욕의식, 정화의식이 시작된다.

이포외진언을 염하여 초청한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목이 좁아 먹지 못하는 존재들의 목구멍을 늘여주는 개인후진언을, 원결을 풀도록 하는 해원결진언을 염송한다. 이제 초청한 존재들이 원결을 풀고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화되었다고 주법(主法)은 관상을 하며 표백은 이제 목욕실에 이를 것을 아뢴다. 욕실을 드린다고 아뢰며 목욕진언을 염송한다. 이때 주법은 욕실이 넓으며 광명으로 깨끗하게 장엄되어 육도군생이 다 욕실에 들어 법력을 입은 까닭에 방해 서로 방해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쾌락해지면 큰 안락을 얻는다고 관상한다. 목욕을 하였으니 새 옷을 입게 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이때 진언으로는 치의(治衣)진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61) 印光撰, 『水陸儀軌會本』,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p.137.

## (2) 한국수륙재

① 상위(단)의 목욕의식: 『지반문』·『중례문』에는 상위의 목욕의식이 존재하지만, 『결수문』에는 목욕의식이 없다. 편목으로는 ‘봉영부욕편’이 그것이다. 성현을 목욕실로 안내하는 말씀을 아뢰고 정로(淨路)진언을 염송하고, 관욕을 찬탄하며 관목진언을 염송한다. 관목진언은 중국수륙재의 목욕진언과 같다. 관목계송을 보면 성현들을 관목(灌沐)함으로써 오탁의 증생들이 여래의 정법신(淨法身)을 증득하기를 발원하는 것은 중국수륙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찬탄 계송이 3구가 1구이고, 아뢰는 표백이 짧을 뿐이다. 목욕이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기를 청하고 대중은 삼보를 찬탄하며 예경한다.

② 중위의 목욕의식: 『지반문』이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6권)의 축약본이지만 그 체제는 약간 다르다.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상당과 하당으로 소청해 의식을 진행하는 데 비해 한국의 『지반문』은 상위 중위 하위로 삼분해 소청한다. 그러다 보니 목욕의식도 조금 차이를 보인다. 『지반문』과 『중례문』의 욕실로 인도하는 의식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찬탄관욕 이후 가지조욕(加持澡浴)편이 이어진다. 중위의 존재는 아직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몸과 마음을 씻고 청정하게 하여 진공(眞空)에 들어 즐거움의 땅에 항상 계시기를 발원한다. 그리고 욕실을 나와 성현에게 참예하는데 천선이 삼보의 성현에게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 앉아 공양을 받는다.

③ 하위의 목욕의식: 하위의 존재에 대한 목욕의식 의문은 『지반문』·『중례문』·『결수문』·『자기산보문』<sup>62)</sup>이 다르지 않다. 초청한 하위의 존재들을 향욕실에 이르게 하고, 가지조욕을 한다. 이어 향탕수(香湯水)에 목욕을 하게 한다. 상위와 중위에서는 ‘관목(灌沐)’이라고 하지만 하위에서는 목욕이라고 하는데, 내용상 의미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목욕계송을 염송하고 난 다음 목욕을 찬탄

62) 『仔夔刪補文』(의총.2), p.293下.

하고 앉으실 자리로 인도하거나 상위의 성현에게 인사하고 자리로 인도하는 중위와 달리 하위에서는 양치에 해당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씹는 작양지(嚼楊枝)진언과 입을 행구는 수구(漱口)진언, 얼굴을 닦는 세수면(洗手面)진언으로 목욕의식이 추가되고 있다. 이후에 목욕을 하여 깨끗해진 몸에 걸맞은 옷을 만들어 입게 하는 가지화의편이 진행된다. 상위와 중위에서는 행하지 않던 목욕진언 이후에 작양지진언·수구진언·세수면진언이 추가되고 있으며, 각 진언에는 수인이 함께 행해진다. 『결수문』에만 수인이 실려 있지만 『중례문』에도 ‘수인은 소본에 있으므로 신지 않는다.’<sup>63)</sup>라고 하는 협주를 참고하면 제본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2) 목욕의식의 한국화

수륙재회에 초청된 존재들은 공양을 받기 전에, 목욕의식을 통해 업에 물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 중국수륙재의 경우 상당과 하당의 존재에 대한 목욕의식은 차이 없이 목욕진언이 활용된다. 그에 반해 한국수륙재에서는 상위와 중위의 그것은 수인을 결하는 것을 빼고는 중국수륙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위의 목욕의식에서는 『자기문』(1150)<sup>64)</sup>에서와 같이 기본 목욕진언 외에 작양지진언·수구진언·세수면진언의 염송과 수인의 결인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목욕진언은 신업(身業) 씻기, 작양지진언과 수구진언은 구업(口業) 씻기, 세수면진언은 의업(意業) 씻기로 이해하여 삼업을 청정히 하는 의식이라 하며, 특히 세수면진언이 의업 씻기임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말에 흔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낮을 들 수 없다’, ‘손을 씻었다.’<sup>65)</sup> 등의 예를 들기도 한다. 목욕의식

6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총.2), p.217下.

64)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的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3, p.30.

65) 구미래, 『천도제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 p.78.

의 네 진언에 대해 신구의 삼업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수록재의 정화의식으로 등장하는 장치를 보면 설득력이 적다. 초청한 존재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장치로는 목욕의식을 통해 몸을 씻고, 이포외진언, 개인후진언, 멸정업진언, 해원결진언, 참회진언 등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자는 이에 대해 목욕이라는 행위의 구체화로 목욕진언 외의 세 진언은 목욕진언의 하위 행위 진언<sup>66)</sup>이라고 이해한다. 이 같은 구조는 목욕 이후의 화의재진언 의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화의재(化衣財)진언은 중국수록재에서는 치의(治衣)진언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수록재에서처럼 수의(授衣)진언·착의(著衣)진언·정의(整衣)진언 등이 등장하지 않는다. 목욕진언이나 화의재(治衣)진언으로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수록재에서는 당해 행위의 구체화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기문』 계통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침묵으로 진행되는 목욕의식에 수인(手印)이 활용된다. 왜 이 같은 의식을 하게 되었을까. 하위의 존재들은 7세 정도의 영아<sup>67)</sup>이므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힐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일일이 씻기고 입히고 하는 것과 같다. 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욕실에서 수인으로 신호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결국 침묵 속에 진행되는 한국수록재의 목욕의식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자비가 가득 담겨 있는, 한국인들의 현실적인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고 하겠다.

66) 법안·우천 공저, 『삼밀시식행법해설』, 서울: 정우서적, 2011, pp.79~80.

67) 志磐 謹撰, 袞宏 重訂,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 74), p.802c.

## 2. 이운의식(移運儀式)의 현재화

이운은 옮긴다는 뜻으로 그것이 등장하는 의식으로 『범음산보집』에는 ‘① 불사리이운, ② 고승사리이운, ③ 가사이운, ④ 전패이운, ⑤ 금은전이운, ⑥ 시주이운, ⑦ 경합이운, ⑧ 괘불이운, ⑨ 설주이운,<sup>68)</sup> ⑩ 주시련작법<sup>69)</sup> 등의 이운 의식이 등장한다. 제목에 이운의 대상이 인물 또는 사물임을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운에 대한 논란이 상존한다. 그 논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자.

### 1) 주요 논점

이운의식에 대한 논란은 이운의 대상이 누구인가<sup>70)</sup>와 이운의식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운의 대상은 누구일까. 현재 시련의식에 활용되는 의문은<sup>71)</sup> 17세기 중엽부터 간행된 『범음산보집』에는 〈시주이운〉의식으로 등장한다. 이 의식의 협주와 범음집 목차 등을 통해 보면, 시주 집안에서 떡과 국수 등을 가지고 오면, 시물을 사찰 밖에서 사찰 안으로 옮겨 오는 과정이라고<sup>72)</sup> 설명한다. 이 의문을 문면과 자의(字意) 그대로를 수용

68) 『梵音刪補集』(『한국불교전서』 제11책), pp.464~465.

69) 『梵音刪補集』(『한국불교전서』 제11책), pp.496下~497上.

70) 시련의 대상은 특정할 수는 없다. 당일 재회의 성격에 달라지게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 등은 에서 현행 시련의식은 시주이운의식의문이므로 상단의 위격을 청할 때는 〈주시련작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수륙재의 이운과 차서의 정합성 고찰』, pp.41~47); 혜일 명조도 이에 대해 길게 의견을 피력하며 영산재와 수륙재의 관계와도 밀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시련의 시기를 개혁오방편 이후 상단과 중단의 시련을 해야 하며 시련소와 단과의 거리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앞의 논문, p.8.

71) 심상현, 『영산재』(pp.138~149)에서의 시련의식문도 같다.

72)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한불전』 제11책), p.464. “沙彌墓結壇 則花瓶燈燭一切威儀 齊整然後 施主家具餅麩持來 則請賢聖衆也”.

하면 현재의 시련의식 의문은 시주가 재회(齋會)를 열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사찰에서는 해탈문 밖에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사찰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불전에 이르러 시주가 인사하며 고(告)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지만 시련의 대상은 재회에서 추천할 선왕 선후의 선가 또는 영가라고 할 수 있다.<sup>73)</sup>

그런데 『新刊刪補梵音集』의 〈습례작법〉에는 법석을 열기 위해 불당의 부처님을 법회장소로 시련하는 의식이 발견된다. 의문과 협주는 다음과 같다.<sup>74)</sup>

[左右判首邊首威儀下來迎請輦差備上壇位牌入呈次舉佛]  
 南無十方佛 南無十方法 南無十方僧  
 志心歸命禮靈山會上拈花示衆是我本師釋迦牟尼佛  
 散花落  
 四顧無人法不傳 鹿苑鶴樹兩茫然 誰知摩竭當年事 落日雙林噪暮蟬  
 故我一心歸命頂禮  
 靈鷲拈花示上機 肯同浮木接盲龜 飲光不是微微笑 無限清香付與誰  
 [每句散花落一聲, 動鉞三, 次位版入輦, 前後威儀列立, 而後梵音云]  
 靈山會上佛菩薩  
 [三輦列於正門外留, 梵音散花落三動鉞, 次入庭中落偈, 入法堂坐佛偈]  
 佛開廣大青蓮眼 妙相莊嚴功德身 人天共讚不能量 比若萬流歸大德  
 [上三句每一度動鉞, 下一句只三度]

73) 홍윤식, 『불교의식』(문화재연구소, 1989), p.230.

74) 『新刊刪補梵音集』(의총.2), pp.581~582. 이 의문을 보고 대한불교조계종 의례위원장 이자 어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묵 스님은 괘불이운이라고 하였다. 괘불이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삼신위패 이운의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 의문은 (불당) 상단의 위패를 향정자에 넣고 거불을 하고 예경한 다음 영취계송을 하고 위판을 연에 넣어 뜰로 거쳐 법당의 자리에 모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불당의 부처님을 설법이 자리인 법연으로 모셔오는 의식이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먼저 영산법회를 열기 위해 부처님을 모셔오는 시련의식이 고향을 추천하는 수륙재에서 어떻게 행해지게 되었는가. 시련이 부처님을 모시던, 선가(仙駕)를 모시던, 한국수륙재의 선두에 자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중국과 한국수륙재의 고행의문 『지반문』·『중례문』·『결수문』 어디에도 시련의식의문이 없다. 시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가와 대면하는 대령도, 사자의식 이후의 길을 여는 오로(五路)의식도 없다. 하위의 존재들은 오직 하단에서 소청되므로 상위와 중위와 하위의 순서로 청하게 되므로 그때에 가서야 영가와 대면[대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추천의식은 ‘시련→대령→관욕→상단권공→중단퇴공→하단시식<sup>75)</sup>’의 기본 구조로 전개되며, 영산재 또한 시련→대령→관욕→조전점안→신중작법→괘불이운→영산작법→식당작법→중단권공→관음시식→봉송 등의 순서로<sup>76)</sup> 진행되고 있다. 공히 시련과 대령이 행해지고 있다.

대령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수륙재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시련을 하는가. 16세기 이래 한국수륙재에는 영산작법이 합편되었다. 영산작법은 법화경의 설법주인 영산의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는 법석으로, 법화경 설법 공덕으로 당일 목적하는 영적 존재들의 왕생극락을 희구하는 데 목적 있었다. 수륙재의 재(齋) 전에 영산작법을 행하게 되면서 자연히 영산의 부

75)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법요집』, 서울: 조계종출판사, 1998/2003), p.271; 1496년 학조에 의해 편찬된 『진언권공』에 합편된 「작법절차」 「삼단시식문」의 편순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6) 심만춘 글, 『영산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pp.135~351.

처님을 초청해 모시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을 모셔오는 시련을 상(上)시련이라고 하고, 중위의 신중을 모셔오는 시련을 중(中)시련, 하위의 영적 존재를 모셔오는 시련을 하(下)시련이라고 하고 있다.

## 2) 논점 정리

시련의식이 한국수륙재의 등장하게 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시련의식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이던 선가를 모시는 의식이던, 아니면 시주의 재물을 옮겨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담긴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수륙재 본 의식 전에 부처님을 모시거나 대령을 하는 모습은, 재회(칠칠재) 5일 전부터 거행하던 법석<sup>77)</sup>의 법주를 청하는 것이고, 영가는 설법을 듣게 하고자 청하는 것이며, 시주이운의 재물 이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불교 때의 수행자들이 섭식(攝食)은 탁발에 의해서였지만 동아시아 대승 불교에서는 사찰에 보급된 토지의 경작으로 그것을 해소하였다. 그런데 재회를 베풀기 위해 재물을 옮겨오는 재주의 시물[재물]은 ‘공불재승(供佛齋僧)’의 주요한 수단이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들께 재를 올리고 경전을 들려줌으로써 망자와 재자가 함께 수복하는 의미 있는 신앙행위로서 시물의 이동은 가장 중요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시주의 시물을 옮기는 <시주이운> 의식은 현실적인 중요성을 안고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78)</sup>

한국수륙재에 시련의식이 수륙재에 존치돼 있는 것은 한국인의 현실적인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법회가 이뤄지려면 설법할 분과 설법을 들어야 될 이들을 모셔 와야 한다. 그러므로 영산에 상주하시는 부처님을 법회도량으

77) 『태종실록』 권15, 1408년 6월 9일조. 이와 같은 법석은 1420년 태종의 명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기되게 된다. 『세종실록』 권8, 1420년 7월 10일조.

78) 이성운 외, 「수륙재의 이운과 차서의 정합성 고찰」, pp.46~47.

로 모시고 또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영적 존재들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원된 방법은, 다름 아닌 국왕이 행차하는 반차도와 가마도 등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련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 IV. 결어

한국에서 수륙재가 설행된 역사는 기록유무를 떠나 그 역사가 자못 길다. 기록상 나타나는 수륙재 설행의 역사나 수륙의문의 도입 시기는 11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14세기 초반부터 그 의문을 새로 편찬하거나 요점만을 추려 한국적인 특징으로 수륙재가 설행되었다고 보인다. 이 글은 중국에서 발생한 수륙재가 한국에 수용되어 설행되는 과정에 보이는 한국수륙재의 특징을 수륙재의 한국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동일한 의문을 한국적인 풍토에 따라 새롭게 편찬하고 설행하면서 일어난 한국화를 이 글에서는 사유와 행위라는 두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수륙재에 대한 사유의 융통성에서 수륙재의 한국화를 찾아보았는데, 수륙재의 ‘수륙’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보면, 수륙은 중생의 의보처(依報處)라고 이해하는 중국의 그것과 달리 물과 물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에서부터 성인과 범부, 또는 성인과 범부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거나 용왕굿이라는 이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공간 범주를 시간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식하는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법회가 열리게 되었음을 네 곳의 공간에 알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네 사자의 이름에 ‘연월일시’라는 시간 개념을 투영함으로써 시공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중도적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하겠

다. 또 수록의문을 요점 위주로 신찬(新撰)하거나 현실적 관점에서 의례를 재편(再編)하고 있다. 설판(設辦) 상황에 따라 의례를 봉행하기 위해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이라는 대·중·소의 의문을 편찬하거나 현실을 반영한 영산작법을 합편하거나 상위·중위·하위의 순서로 소칭하면서도 하위의 영적 존재를 먼저 대령하여 업장을 없애고 선근을 닦게 하는 의례 차서를 재편해 설행하고 있는데, 이는 역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록재 설행에 보이는 행위의 구체성 속에서 수록재의 한국화를 목욕의식과 시련의식을 주에서 찾아보았다. 한국수록재에서는 목욕의식을 할 때 상위와 중위의 성현들을 위해서는 욕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만, 하위의 존재들에게는, 일일이 치질을 도와주거나, 입을 가시게 하고, 얼굴과 손을 씻게 해준다. 그리고 종이옷으로 해탈 옷으로 변화하게 하는 화의의식도 옷을 주는 진언, 옷을 입는 진언,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진언 등을 시설하고 있다. 또 중국수록재와 달리 수인을 곁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수록재에서 볼 수 없는 한국수록재의 행위의 구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수록재의 법회도량에서 설법을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시련(侍輦)의식을 구체적으로 설행한다. 불화를 내거는 괘불이운의식은 티베트 등지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모습이지만 삼심 위패를 연에 싣거나 연을 따라 법회도량으로 모시는 것은 국왕의 행차를 본 뜬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불교수록재의 구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수록재에는, 수록재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이해와 인식뿐만 아니라 특정 의문이나 행법을 고집하지 않고 당해 상황에 맞는 의문과 행법을 신편·산보·재편하는 사유의 융통성과 목욕의식이나 시련의식에서 볼 수 있는 행위의 구체성과 같은 수록재의 한국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수록재의 한국화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원전

- 『大正新修大藏經』=T.
-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三聖庵, 1993)=의총.
- 『韓國佛教全書』(동국대학교출판부, 1993)=한불전.
  
- 『태조실록』 권7.
- 『태종실록』 권15.
- 『세종실록』 권6권.
  
- 『懶翁和尚語錄』, 「國行水陸齋起始六道普說」, 한불전, 6.
- 『靈山大會作法節次』, 의총, 2.
- 『新刊刪補梵音集』, 의총, 2.
-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지만문』, 의총, 1.
-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중례문』, 의총, 2.
-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결수문』, 의총, 2.
- 『仔夔刪補文』=『자기문』, 의총, 2.
-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한불전, 11.
-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X, 74).
- 『동문선』 권118.
- 『국역양촌집』, 민족문화추진회, 1978/1986.

### 단행본

- 鎌田茂雄, 『中國の佛教儀禮』,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6.

-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상,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 金春明, 『水陸儀文』, 전북: 全北佛教聯合會, 1988.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서울: 조계종출판사, 1998/2003.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륙재』,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0.
- 법안 · 우천 공저, 『삼밀시식행법해설』, 서울: 정우서적, 2011.
- 石峰, 『水陸無遮儀禮集』, 경남: 불모산영산재보존회, 2557.
- 심만춘, 『영산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 正覺, 『예불이란 무엇인가』, 서울: 운주사, 1993/2004.
-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1984.
- 洪潤植, 『佛教儀式』, 서울: 文化財研究所, 1989.

## 논문

- 구미래, 「천도제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 『淨土學研究』 제22집, 서울: 한국 정토학회, 2014.
- 金容祚, 『朝鮮前期의 國行祈攘佛事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종명, 「한국 일상예불의 역사적 변천」, 『불교학연구』 18,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 송일기 · 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판본고」, 『서지학보』 제37호, 서울: 한국서지학회, 2011.
-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 서울: 서지학회, 2011.

- 윤소희, 「수륙재의 원형에 대한 고찰-대만 포광산 수륙법회를 통하여-」,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 서울: 영산재보존회, 2008.
- 이성운,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 『보조사상』 제38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2.
- \_\_\_\_\_,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서울: 한국선학회, 2013.
- 이성운 외, 「수륙재의 이운과 차서의 정합성 고찰」,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상반기학술발표회』, 2014. 6.
- \_\_\_\_\_,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4.
- 전경욱, 「수륙재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법성포수륙재』,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논문집, 영광: 법성포단오제보존회, 2008.
-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3.
- 헤일명조, 「수륙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제언」,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승양상과 발전 방향』, 동해: (사)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한국불교민속학회, 2014.
- 홍윤식, 「수륙재의 내용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동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 동해시, 2009.

Abstract

## Consideration of the Koreanizing of Suryukjae



Lee, Sung-Woon

(Adjunct professor, continuing education of Dongguk univ.)

This essa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in terms of both thinking and doing by comparison to the original Chinese ritual.

Firstly, the 'Suryuk' of Suryukjae, it means Uibocheo(依報處, the venue for Dependent recompense) for Sentient beings in China. However, it has various other meanings from the exterior place of land and water, to ordinary beings and saints, and even to Youngwanggut(the ritual for the Dragon King). It represents the world view of the Middle way, neither one nor two(不一不二) which pursues the harmony of time and space by adding the concept of time, that is, year, month, date and hour to the names of the four messengers who are in charge of announcing the opening to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Also, the ritual program for Suryukjae is compiled anew by summarizing the main point or reorganized prac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 of performing the ritual, it is organized into large, medium or small system, that is; Gyeolsmun(結手文, making mudrās), Jungryemun(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and Jibanmun(志磐文, the ritual program by Giban), and the rules of

conduct for Yeonsanbeopseok(靈山法席, Dharma seat at Vulture Peak) are combined with Suryukjae by reflecting reality. The ritual is reorganized, so that Socheong(召請, invitation) is performed in the order of upper, middle and lower class of the soul but Daeryeong(對靈, the rite of calling in the soul) is performed for the lower class first to eliminate Karmic obstacles and cultivate wholesome roots.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dynamic and flexible thought.

Secondly, the rite of bathing(沐浴儀式) and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are defined in Korean Suryukjae. When the rite of bathing is performed, it is the common for the soul of the upper and middle class to be conducted into the bathroom in both Korea and China. But for the soul of the lower class, the Korean ritual involves the following; to help each one brush one's teeth and gargle, to clean the face and hands in the rite of bathing, followed by giving each other clothes, dressing and straightening the dress in the rite of clothing(化衣儀式) during which the paper clothes are transformed into those for the nirvana. Mudra is also practiced.

Again, the purpose of Siryeon is to escort Buddha to the Dharma hall. Though hanging a painted Buddhist scroll is common in Tibet, too, in the Korean ritual, the memorial tablets for the three legendary founders of Korea are placed onto a sedan chair and escorted into the Dharma hall, emulating the king's royal procession. This demonstrates the externalization of Korean Suryukjae well.

Key-words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the rite of bathing(沐浴儀式),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the flexibility for thought, the externalization for action.

투고완료일 2015. 3. 15. 심사완료일 2015. 4. 13. 게재확정일 2015. 4. 20.